

鮑照의 <代白頭吟>시에 대하여

宋 永 程*

<目次>

- | | |
|-----------------|-------------|
| I. 緒言 | 2. 주제와 창작시기 |
| II. <白頭吟> 本辭 고찰 | 3. 의의와 영향 |
| III. 鮑照의 <代白頭吟> | IV. 結語 |
| 1. 작품 분석 | |

I. 緒言

清 朱乾은 《樂府正義》에서, 鮑照의 <代出自薊北門行>시가 曹植의 <艷歌行>시의 첫 구 “出自薊北門”을 제목으로 따왔는데, 조식의 시는 본래 從軍과는 무관하지만 포조의 시는 그 시의 첫 구절을 차용하여 燕薊 지방의 풍물과 征戰의 고난을 그렸음을 지적하면서,

대개 악부에는 ‘轉’과 ‘借’가 있는데, ‘전’은 옛 제목을 좇아 새로운 내용을 전환해내는 것이고, ‘차’는 앞 제목을 빌어 와 자기의 생각으로써 재단하는 것이다. 의고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 두 가지 의의를 안 뒤라야 변화의 본의를 참구할 수 있는 것이다.¹⁾

* 계명대학교 인문대학 중국어문학과 교수

1) 朱乾, 《樂府正義》: “蓋樂府有轉有借, 轉者就舊題而轉出新意, 借者借前題而裁以己意. 擬古者須識此二義, 然後可以參變.”(錢仲聯 增補集說校, 《鮑參軍集注》(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0.11) p.166)

라고 하였다. 여기서 ‘轉’은 같은 제목의 古辭의 원 주제나 내용을 전환하여 확장 내지 변화시키는 것을 뜻하고, ‘借’는 제목만을 차용하여 주제나 내용을 새롭게 개척하는 것을 말한다. 朱乾이 포조의 <代出自薊北門行> 시에 대해서 말한 것은 ‘借’에 해당하는 것이다. 필자는 이미 이 시에 대해 살펴본 바 있으므로,²⁾ 본고에서는 ‘轉’에 해당하는 작품의 하나로 <代白頭吟>시를 살펴보기로 한다.

II. <白頭吟> 本辭 고찰

이 시는 齊 沈約(441~513)의 《宋書·樂志》에 <白頭吟>이라는 제목으로 맨 먼저 수록되었고, 陳 徐陵(507~583)의 《玉臺新詠》에는 <皚如山上雪>이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다. 두 작품의 내용은 대동소이하고 표현도 유사하지만 전자가 편폭이 다소 길다. 宋 郭茂倩(1084 전후)의 《樂府詩集》에는 이 두 작품을 모두 수록하고 전자를 “晉樂所奏”로 후자를 “本辭”로 표기하였다. 광무천의 견해에 따르면 《옥대신영》에 수록된 작품이 漢代의 원작이고, 《宋書》에 수록된 것은 晉代의 음악에 맞추어 가사가 보태어지고 다소 손질이 가해진 작품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옥대신영》의 작품을 한대 악부로 다루어 소개하는 것이 관례이다. 작품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³⁾

2) 嶺南中國語文學會, 《中國語文學》 제28輯 pp.121-149.

3) ‘晉樂所奏’는 ‘本辭’ 제 4구 뒤에 “平生共城中, 何嘗斗酒會” 두 구, 제 8구 뒤에 “郭東亦有樵, 郭西亦有樵. 兩樵相推與, 無親爲誰驕” 네 구, 끝에 “皚如馬嘶其, 川上高士嬉. 今日相對樂, 延年萬歲期” 네 구가 붙어 있다. 또 제 10구의 “不須啼”가 “亦不啼”로 되어 있고, 제 14구의 “何篔簹”가 “何離篔”로 되어 있다. 《宋書·樂志》에는 제 1구의 “雪”자가 “雲”자로 되어 있으나, 이것은 오자로 보인다. 陳胤倩에 의하면 ‘晉樂所奏’는 리듬을 맞추기 위해 자구를 늘린 것이다(黃節, 《漢魏樂府風箋》(臺北: 學生書局, 1971.3) 권5, p.50: “晉樂爲諧節奏, 每增數語.”).

1. 희기는 산 위의 흰눈과 같고	皚如山上雪
2. 밝기는 구름 사이 달과 같지요.	皎若雲間月
3. 그대에게 딴 마음이 있다 하기에	聞君有兩意
4. 그리하여 그대와 결별하려 한다오.	故來相決絕
5. 오늘은 한 말 술로 함께 모이고	今日斗酒會
6. 내일 아침 냇가에서 헤어지려 한다오.	明旦溝水頭
7. 궁궐 냇가에서 서성이나니	蹉跎御溝上
8. 냇물은 동쪽으로 흘러간다오.	溝水東西流
9. 줄줄 눈물은 흐르고 흐르지만	淒淒復淒淒
10. 시집을 가는데 울 거야 없소.	嫁娶不須啼
11. 변함 없는 마음 지닌 사람을 만나	願得一人心
12. 파뿌리 되도록 해로하기 바라오.	白頭不相離
13. 대 장대는 어찌 저리 간들거리고	竹竿何嫋嫋
14. 고기 꼬리 어찌 저리 팔딱이는가.	魚尾何簌簌
15. 사나이는 애정을 중시하는 법	男兒重意氣
16. 돈은 어디에다 쓰려는 거오?	何用錢刀爲

이 시는 네 구씩 네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 1-4구에서는 여성 화자가 자신의 순수하고 결백함을 산 위에 쌓인 백설과 구름 사이에 빛나는 명월을 비유로 하여 강조한 후, 남자 측의 변심 때문에 자신은 결별이라는 선택을 하겠다는 것을 단호하게 선언하고 있다. 제 5-8구가 제 2단락으로 결별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헤어지기 전 우선 오늘 한 말의 이별주를 마시고 난 후 내일 아침에 냇가에서 헤어지는데, 이 냇물이 동쪽으로 흘러가면 다시 돌아올 수 없듯이 우리의 사랑도 영원히 끝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⁴⁾ 제 9-12구는 제 3단락으로 이상적인 결혼을 이야기

4) 余冠英의 견해를 따랐다. 여관영은 “東西流”를 “東流”의 뜻인 偏義複詞로 보고 과거의 애정생활은 東流水처럼 한 번 가면 다시 오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다(余冠英, 《漢魏六朝詩選》(北京 제2판;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1978.12), p.37). “東西流”를 글자 그대로 동서 양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으로 풀이하여, 두 사람의 결별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趙其鈞, <『白頭吟』鑑賞>, 《漢魏晉南北朝隋詩鑑賞詞典》(太原: 山西人民出版社, 1989.3), p.1668).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시집가기 전에 처녀들이 눈물을 흘리고 울지만 시집가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 ‘一心人’을 얻어 ‘검은 머리 파뿌리 되도록’ 해로하면 그지없이 행복한 일생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단락에서는 제목의 ‘白頭’의 의미를 서술하고 있다. 마지막은 제 4단락으로 남자가 다른 여인과 서로 다정하게 지내는 이유는 그 여인에게 돈이 많기 때문임을 말하면서, 사내대장부라면 마땅히 ‘意氣’를 중시해야 함을 강조함으로써 돈과 미색에 빠지기 쉬운 남자들의 태도를 질책하고 있다. 이 시는 남자의 변심을 질책하는 여성 화자의 작품이며, 부부의 틈을 갈라놓은 것은 새로이 나타난 다른 여인이기 때문에, 《樂府解題》에서는 <백두음>의 주제를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지만 새 사람이 옛 사람과의 사이를 이간질하여 백년해로할 수 없게 된 것을 미위한 것으로 보고, 그 때문에 ‘白頭’를 제목으로 삼았다고 한 一說을 아울러 인용하였다.⁵⁾

그런데 《西京雜記》에서

사마상여가 茂陵 사람의 딸을 첩으로 들이려 하였는데, 탁문군이 <백두음>을 지어 스스로 결별을 선언하자 사마상여가 그 일을 그만두었다.⁶⁾

라고 하여 이 시의 작자를 司馬相如의 아내 卓文君이라고 한 이후, 많은 이들이 이 견해를 신봉해 왔고, 明 馮惟訥의 《古詩紀》에서는 이 시의 제목을 “卓文君白頭吟”이라고 하였다. 또 盛唐의 李白(701~762)은 같은 제목의 시 두 수에서 아예 탁문군의 고사를 시의 소재로 채택하였다. 여기서 그의 <백두음> 제1수를 살펴보자.

1. 錦江은 동북으로 흘러가는데

錦水東北流

5) 《樂府解題》: “一說云: 白頭吟疾人相知, 以新舊, 不能至於白首, 故以爲名.” (郭茂倩, 《樂府詩集》(臺2版; 臺北: 中華書局, 1970.6) 권41 <相和歌辭·楚調曲> p.1b)

6) 《西京雜記》(臺灣商務印書館『文淵閣四庫全書』영인본) 권3 p.14: “司馬相如將聘茂陵人女爲妾, 卓文君作白頭吟以自絕, 相如乃止.”

2. 한 쌍의 원앙새 등실 떠있다.	波蕩雙鴛鴦
3. 수컷은 한궁 나무에 등지를 짓고	雄巢漢宮樹
4. 암컷은 진나라의 방초에 논다.	雌弄秦草芳
5. 차라리 함께 죽어 고운 날개 찢어져도	寧同萬死碎綺翼
6. 차마 구름 속에 헤어지진 못하노라.	不忍雲間兩分張
7. 阿嬌는 그 때 곱고 시샘도 많았는데	此時阿嬌正嬌妬
8. 장문궁에 홀로 앉아 저무는 날 시름하네.	獨坐長門愁日暮 ⁷⁾
9. 오로지 임금 총애 깊기를 바랐을 뿐	但願君恩顧妾深
10. 황금으로 賦 사는 것 아깝지 않았다.	豈惜黃金將買賦
11. 사마상여 부 지어 황금 얻었으나	相如作賦得黃金
12. 사나이 새 여인 좋아 딴 맘을 먹어,	丈夫好新多異心
13. 하루아침 무릉 여인 맞으려 하니	一朝將聘茂陵女
14. 탁문군은 <백두음> 시를 지었네.	文君因贈白頭吟
15. 동류수는 서쪽으로 돌아오지 않고	東流不作西歸水
16. 낙화는 가지 떠나 옛 숲에 간다.	落花辭條歸故林
17. 새삼은 본디부터 무정하여서	免絲固無情
18. 바람 따라 이리저리 넘어지는 것.	隨風任顛倒
19. 누라서 여라의 가지 불러와	誰使女蘿枝
20. 억지로 감아 안게 알 수 있는가.	而來強縈抱
21. 두 풀은 그래도 한 맘이지만	兩草猶一心
22. 사람 맘은 풀보다도 더 못하다오.	人心不如草
23. 용수석은 말아 두면 아니 되나니	莫卷龍鬚席
24. 거기에서 거미줄이 생겨난다오.	從他生網絲
25. 호박베개 잠시 동안 머물러 보오	且留琥珀枕

7) 阿嬌는 漢 武帝의 고모 長公主의 딸로 무제가 즉위한 후 陳皇后가 되었으나, 나중에 失寵하여 長門宮에 유폐되자, 司馬相如에게 황금 백 근을 주고 <長門賦>를 얻어 다시 황제의 총애를 얻고자 하였다. 《漢武故事》(『文淵閣四庫全書』本): “膠東王數歲, 公主抱置膝上問曰: ‘兒欲得婦否?’ 長主指左右長御百餘人, 皆云不用, 指其女: ‘阿嬌好否?’ 笑對曰: ‘好, 若得阿嬌作婦, 當作金屋貯之.’ 長主大悅.” 《文選》(서울: 正文社 영인본) 권16 <賦·哀傷> p.377 司馬相如 <長門賦·序>: “孝武皇帝陳皇后, 時得幸頗妬, 別在長門宮, 愁悶悲思, 聞蜀郡成都司馬相如, 天下工爲文, 奉黃金百斤, 爲相如文君取酒, 因于解悲愁之辭. 而相如爲文以悟主上, 皇后復得親幸.”

- | | |
|--------------------------|-----------------------|
| 26. 어찌면 꿈꿀 때도 있을 것이오. | 或有夢來時 |
| 27. 얹어진 물 어찌 다시 채울 수 있소? | 覆水再收豈滿杯 |
| 28. 버린 첩도 다시 불러 들일 수 없소. | 棄妾已去難重回 |
| 29. 옛날에는 득의해도 어기지 않고 | 古時得意不相負 |
| 30. 지금은 청릉대만 보일 뿐이오. | 祇今唯見靑陵臺 ⁸⁾ |

그러나 淸初의 馮舒(1593~1645?)는 《詩紀匡謬》에서 탁문군이 작자라는 이 견해가 옳지 않음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宋書》의 大曲에 <白頭吟>이 있는데 ‘古辭’라고 하였으며, 《樂府詩集》·《太平御覽》 역시 그러하다. 《玉臺新詠》에는 제목이 <皚如山上雪>이라고 되어있는데, 卓文君이라고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제목도 <白頭吟>이라고 하지 않았다. 《西京雜記》만이 탁문군이 <白頭吟>을 지어 스스로 결별하였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역시 그 가사를 밝히지 않았다. 혹시 탁문군에게 다른 작품이 있다 하더라도 서둘러 이 시로써 그것으로 간주할 수는 없는 것이다.⁹⁾

淸 陳沆(1785~1826)도 《詩比興箋》에서 《詩紀匡謬》의 견해와 비슷

- 8) 李元의 《獨異志》(北京: 中華書局, 1985) 卷中 p.26에 《搜神記》를 인용하여, “宋의 康王이 韓朋(《搜神記》 권11에는 韓憑으로 되어 있다)의 아내가 예뻐 빼앗고는 한봉더러 靑陵臺를 짓게 한 뒤 죽였다. 그의 아내는 초상에 가도록 해 달라고 하여 마침내 투신자살하였다. 왕은 청릉대 좌우에 나누어 매장하도록 하였다(宋康王以韓朋妻美而奪之, 使朋築靑陵臺, 然後殺之. 其妻請臨喪, 遂投身而死. 王令分埋臺左右.)”고 하였는데, 干寶의 《搜神記》 권11에는 청릉대 이야기는 없고 매장한 뒤 두 무덤에서 나무가 자라나 가지와 뿌리가 하나로 합쳐져 이를 ‘相思木’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하였다(《搜神記》(『學津討原』本) 권11: “宋康王舍人韓憑娶妻何氏, 美, 康王奪之. ……宿昔之間, 便有大梓木, 生於二冢之端, 旬日而大盈抱, 屈體相就, 根交於下, 枝錯於上. 又有鴛鴦, 雌雄各一, 恆棲樹上, 晨夕不去, 交頸悲鳴, 音聲感人. 宋人哀之, 遂號其木曰‘相思樹.’”).
- 9) 馮舒, 《詩紀匡謬·卓文君白頭吟》(中華書局 『知不足齋叢書』 영인본) p.69: “宋書大曲有白頭吟作‘古辭’; 樂府詩集·太平御覽亦然. 玉臺新詠題作皚如山上雪, 非但不作文君, 并題亦不作白頭吟也. 惟西京雜記有文君爲白頭吟以自絕之說, 然亦不著其辭; 或文君自有別篇, 不得遽以此詩當之也.”

한 주장을 하면서, 《西經雜記》에서 저자를 卓文君으로 본 것을 건강부 회라고 하였다.¹⁰⁾ 그런데 梁 沈約의 《宋書·樂志》에서는 이미 “樂章의 古辭로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것은 모두 漢代에 길거리에서 불려지던 가요이니, <江南可採蓮>·<烏生八九子>·<十五>·<白頭吟> 부류가 그것이다”¹¹⁾라고 하여, <백두음> 고사를 민간에 유행하던 民歌로 보고 있다. 오늘날은 대부분 한대의 악부 민가로 분류하고 있다.

III. 鮑照의 <代白頭吟>

1. 작품 분석

1. 곧기는 붉은 명주 현과 같고	直如朱絲繩
2. 맑기는 옥 병 속의 얼음 같다.	清如玉壺冰
3. 오랜 뜻 그 무엇이 부끄러우라	何慙宿昔意
4. 시기 원한 공연히 꼬리를 문다.	猜恨坐相仍
5. 인정은 옛 은정을 천히 여기고	人情賤恩舊
6. 세론은 흥망성쇠 쫓기만 한다.	世議逐衰興
7. 터럭만한 흠이라도 생기는 날엔	毫髮一爲瑕
8. 태산도 감당해낼 도리가 없다.	丘山不可勝
9. 곡식 싹 먹는 것은 사실은 큰 쥐	食苗實碩鼠
10. 흰 것을 더럽힌 건 실로 쉬파리.	玷白信蒼蠅
11. 백조는 먼 데서 와 곱게 보이고	鳧鵠遠成美
12. 뉘나무는 앞선 것이 밑에 치인다.	薪芻前見陵
13. 포사가 들어오니 신후는 쫓겨나고	申黜褒女進

10) 陳沆, 《詩比興箋》(香港: 中華書局, 1965.4) pp.33-34: “玉臺新詠載此篇, 題作皚如山上雪, 不云白頭吟, 亦不云何人作也。宋書大曲有白頭吟作古辭。御覽·樂府詩集同之, 亦無文君作白頭吟之說。自西京雜記爲書, 始附會文君, 然亦不著其辭, 未嘗以此詩當之。”

11) 《宋書·樂志一》(서울: 景仁文化社 영인본) p.549: “凡樂章古詞, 今之存者, 竝漢世街陌謠謳, 江南可採蓮·烏生·十五·白頭吟之屬是也。”

14. 조비연 올라오니 반첩여 떠나간다.	班去趙姬昇
15. 주 유왕은 나날이 빠져들었고	周王日淪惑
16. 한 성제는 더더욱 찬탄하였다.	漢帝益嗟稱
17. 진심 사랑 오히려 못 미더운데	心賞猶難恃
18. 고운 용모 어찌 쉬 기댈 수 있나?	貌恭豈易憑
19. 예로부터 모두 다 이와 같으니	古來共如此
20. 그대만이 가슴 칠 일은 아니다.	非君獨撫膺

제 1구의 ‘朱絲’는 붉은 명주실을 꼬아 만든 현으로, 《禮記·樂記》의 “清廟의 瑟은 붉은 현에 공명 통을 크게 한다(清廟之瑟朱弦而疏越)”의 ‘朱弦’에서 전고를 취하였다. 제 2구는 應劭의 《風俗通義》 권10 <山澤·嘉號>의 “사람이 맑고 고상하기가 얼음의 깨끗함과 같다는 말이다(言人清高, 如冰之潔)”에서 전고를 취하였다. 이 두 구는 <本辭>가 ‘山上雪’과 ‘雲間月’로 결백함을 비유한 방식을 그대로 차용하였으면서도, 결백을 나타내는 비유로 쓰인 ‘玉壺冰’의 이미지는 그들보다 한결 강렬해졌다. 뿐만 아니라 ‘朱絲繩’을 비유로 한 ‘정직’을 첫 구에 말함으로써 시인 자신의 강직하고 청렴결백한 성품을 강하게 부각하고 있다. 이것은 그의 <擬行路難> 제6수의 마지막 두 구 “예로부터 성현들도 모두 빈천했거늘, 고단하고 끈기만 한 우리들이라(自古聖賢盡貧賤, 何況我輩孤且直)”를 상기시키며, 아울러 같은 시 첫 두 구에서 말한 “밥상을 대하고도 먹을 수 없어, 칼 뽑아 기둥 치며 긴 탄식 끝이 없는(對案不能食, 拔劍擊柱長嘆息)” 시인의 모습을 연상시킨다. 그리고 “현처럼 곧으면 길가에서 죽고(直如弦, 死道邊)”¹²⁾, “깨끗한 것은 더럽혀지기 쉽다(皎皎者易汚)”¹³⁾고 한 중국의 옛 가요처럼, 주위의 시샘과 비방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음을 암시한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제 3,4구의 복선이기도 하다. 자신의 ‘宿昔意’는 오로지 ‘直’과 ‘清’의 실천에 있었지만 주변에서는 무단히 ‘猜恨’이 일어나 자신을 비

12) 《後漢書·五行志一·謠》(서울: 景仁文化社 영인본) p.3281: “順帝之末, 京都童謠曰: ‘直如弦, 死道邊; 曲如鉤, 反封侯.’”

13) 《後漢書·黃瓊列傳》 p.2032: “常聞語曰: ‘嶢嶢者易折, 皎皎者易汚.’”

방하고 무고하였다. 제 5,6구에 의하면, 이는 자신과 ‘恩舊’의 관계에 있는 가까운 사람이 권력을 좇아(逐衰興) 한 것이다. 제 7,8구에서는 後漢 李尤의 <戟銘>의 “산이 무너지는 재앙은 아주 작은 데서 시작된다(山陵之禍, 起于豪芒.)”¹⁴⁾를 전고로 취하여, 작은 비방과 무고가 매우 큰 결과를 초래함을 말하였다.

제 9,10구에서는 《詩經》에서 두 가지 전고를 취하여, 자신을 비방하고 무고한 무리들이 오히려 문제가 있는 사람임을 말하였다. 제 9구는 《詩經·魏風·碩鼠》의 제 3장 제 1,2구 “큰 쥐야 큰 쥐야, 우리 곡식 먹지 마라(碩鼠碩鼠, 無食我苗)”에서 전고를 취한 것이다. <碩鼠>는 <毛詩序>에서 “가렴주구를 풍자한 것(刺重斂)”이라고 하였거니와, ‘碩鼠’는 바로 그러한 정책을 집행하는 貪婪한 관리를 비유한다. 제 10구는 《詩經·小雅·青蠅》의 “잉잉 쉬파리가, 울타리에 앉았네. 온화한 군자여, 참언을 믿지 마오(營營青蠅, 止于樊. 豈弟君子, 無信讒言)”의 鄭玄 주 “파리라는 벌레의 성질은 흰 것을 더럽혀 검게 만들고 검은 것을 더럽혀 희게 만듦으로, 아침 잘하는 사람이 선악을 문란하게 하는 것을 비유한다(蠅之爲蟲, 汙白使黑, 汙黑使白, 喻佞人變亂善惡也)”와 曹植 <贈白馬王彪>의 “쉬파리가 흑백을 헐뜯네(蒼蠅間白黑)”에서 전고를 취한 것으로, ‘蒼蠅’은 흑백과 선악을 헐뜯어 뒤섞고 친한 이를 이간질하여 관계를 소원하게 하는 아침꾼을 비유한다. 즉 시인을 무고하고 비방한 이는 탐관오리와 아침꾼의 속성을 지닌 인물이라는 말이다.

제 11,12구는 賢良한 인재를 쓸 줄 몰랐던 두 군주의 고사를 전고로 취하여,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였다. 먼저 제 11구는 제 9구에 인용된 <碩鼠>의 제 2장에 대한 《韓詩外傳》의 이야기를 전고로 취하였는데, 이는 魯 哀公(494~466 B.C. 재위)의 知遇를 받지 못한 田饒가 노나라를 떠나면서 애공에게, 애공이 닮은 五德을 갖추고 있지만 늘 가까이서 보니까 귀한 줄 모르고 삶아 먹으면서, 물고기와 곡식을 해치기만 하는 백조는

14) 《全上古三代秦漢三國六朝文》(4版; 臺北: 世界書局, 1982.2) 제2책 《全後漢書》 권50 p.9a.

먼 곳에서 날아온 때문에 귀중히 여기는 것처럼, 신하도 그렇게 쓰는 것을 빗대어 한 이야기이다.

田饒는 魯 哀公을 섬겼으나 重用되지 못하였다. 그래서 애공에게 말하였다. “저는 장차 폐하를 떠나 고니처럼 날아가겠습니다.” 애공이 말했다. “무슨 뜻인가?” 전요가 말했다. “폐하는 설마 저 닭을 못 보셨습니까! 머리에 모자(벧)를 쓰고 있는 것은 ‘文’을 상징하고, 발에 머느리발톱이 붙어 있는 것은 ‘武’를 뜻합니다. 적이 앞에 있으면 용감하게 싸우는 것은 ‘勇’이요, 먹울 것을 얻으면 무리들을 부르는 것은 ‘仁’이요, 밤을 지키며 시간을 어기지 않는 것은 ‘信’을 나타냅니다. 닭에게는 이러한 다섯 가지의 德이 있는데도 임금님께서 오�히려 매일 그것을 삶아서 잡수시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것이 가까운 데서 왔기 때문입니다. 저 백조는 한 번에 천리를 날아 임금님의 정원과 연못에 머물면서 임금님이 기르는 물고기를 잡아먹고 임금님의 곡식을 쪼아 먹습니다. 이 다섯 가지 덕을 지니지도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금님께서 오�히려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그것이 먼 곳에서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곧 임금님의 곁을 떠나려는 것은 백조가 멀리 날아가는 것입니다.” 애공은 “멈추어라. 내 장차 그대의 말을 기록해 둘 것이다.”라고 하였다. 전요는 말했다. “저는 남의 음식을 얻어먹는 사람은 그 그릇을 부수지 않고, 나무 아래서 햇볕을 피하는 사람은 그 나뭇가지를 꺾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폐하께서 신하가 있는데도 쓰지 않고, 그 말은 왜 적어두십니까?” 마침내 떠나서 연나라로 갔다. 연나라에서는 그를 재상으로 임명하여 3년 만에 정치가 매우 안정되고 나라에 도적이 없어졌다. 애공은 크게 탄식을 하며, 그 때문에 석 달 동안 침실에 들지 않았으며 얼굴에 행하는 형벌(劓刑이나 墨刑 등)을 줄였다. (어떤 사람이 애공을 비평하여) 말하였다. “사전에 신중하지 않고 나중에 누우친들, 어찌 다시 얻을 수 있겠는가!” 《詩經·魏風·碩鼠》에서 “맹세코 장차 너를 떠나, 저 즐거운 나라로 가리라. 즐거운 나라 즐거운 나라여, 그곳은 바로 나 바르게 살 곳이네.”라고 하였다.¹⁵⁾

15) 賴炎元註譯, 《韓詩外傳今註今譯》(7版;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94.6) 권2 p.70: “田饒事魯哀公而不見察, 謂哀公曰: ‘臣將去君, 黃鵠舉矣.’ 哀公曰: ‘何謂也?’ 曰: ‘君獨不見夫雞乎! 首戴冠者, 文也. 足搏距者, 武也. 敵在前敢鬪者, 勇也. 得食相告, 仁也. 守夜不失時, 信也. 雞有此五德, 君猶日淪而食之者, 何也?’

제 12구는 汲黯이 九卿의 반열에 올랐을 때 아직 하급관리였던 公孫弘과 張湯이 자신과 同列을 거쳐 승상과 제후가 되고 御史大夫가 되자, 불만을 품은 汲黯이 武帝에게 “폐하는 群臣을 쓰시기를 마치 목재를 쌓아두듯이 하여 나중에 온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오르도록 하십니다.”라고 한 말을 전고로 취하였다.¹⁶⁾ 이상 두 전고를 통하여 시인을 무고하고 비방한 인물은 멀리서 왔으며 그보다 뒤에 발탁되었는데, 더 고위직으로 승진하였을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제 13-16구는 周 幽王 때 申后와 褒姒의 黜陟과 漢 成帝 때 班婕妤와 趙飛燕의 盛衰의 고사를 전고로 취하였다. 덕성으로 인정받던 먼저 온 인물을 물리치고 왕후에까지 올랐던 두 여인이 모두 멀리서 와 미모로 군주의 꿈을 받았음을 말함으로써, 한편으로는 ‘백두음’ 古辭의 本旨를 살리면서 한편으로는 이 시 제 11,12구에서 말한 내용을 보충하고 있다. 제 13구에서는 《詩經·小雅·白華》의 <毛詩序>에서: “周 幽王은 申氏의 딸에게 장가들어 王后로 삼았다. 또 褒姒를 얻고는 申后를 폐출하였다(幽王取申女以爲后, 又得褒姒而黜申后)”고 한 것과 《史記·周本紀》의 周 幽王이 왕후인 申侯의 딸 申后와 태자 宜臼를 廢黜하고 褒姒와 그의 아들 伯服을 각각 왕후와 태자로 맞아들인 기록¹⁷⁾을 전고로 취하였고, 제 14구는 班婕妤가 漢 成帝의 꿈을 받으며 增成舍에 거처하다가 趙飛燕 때문에 실

則以其所從來者近也。夫黃鵠一舉千里，止君園池，食君魚鼈，啄君黍粱，無此五者，君猶貴之，以其所從來者遠矣。臣將去君，黃鵠舉矣！’ 哀公曰：‘止。吾將書子言也。’ 田饒曰：‘臣聞：食其食者，不毀其器；陰其樹者，不折其枝。有臣不用，何書其言？’ 遂去，之燕。燕立而爲相，三年，燕政大平，國無盜賊。哀公喟然太息，爲之辟寢三月，減損上服。曰：‘不慎其前，而悔其後，何可復得。’ 詩云：‘逝將去汝，適彼樂國；樂國樂國，爰得我直。’”

16) 《史記·汲黯傳》(서울: 景仁文化社, 영인본) p.3109: “天子旣數征匈奴有功, 黯之言益不用. 始黯列爲九卿, 而公孫弘·張湯爲小吏. 及弘·湯稍益貴, 與黯同位, 黯又非毀弘·湯等. 已而弘至丞相, 封爲侯; 湯至御史大夫; 故黯時丞相史皆與黯同列, 或尊用過之. 黯褊心, 不能無少望, 見上, 前言曰: ‘陛下用羣臣如積薪耳, 後來者居上’ 上默然. 有間黯罷, 上曰: ‘人果不可以無學, 觀黯之言也日益甚.’”

17) 《史記·周本紀》 p.147: “三年, 幽王嬖愛褒姒, 褒姒生子伯服. ……竟廢申后及太子, 以褒姒爲后, 伯服爲太子.”

총하였다고 한 《漢書·外戚傳下》의 고사¹⁸⁾를 전고로 취하였다. 제 15구는 주 유왕이 잘 웃지 않는 포사를 웃겨보려고 침략이 있을 때에 올리는 봉화를 올려 제후들을 모이게 한 일¹⁹⁾을 전고로 취하였고, 제 16구는 한 성제가 결국 조비연을 매우 총애하여 황후로 봉하기 위해, 미천한 출신성분을 보완하려고 아버지를 먼저 成陽侯에 봉하기까지 한 일²⁰⁾을 전고로 취하였다. 이 네 구에는 두 명의 새 여인에 의해 두 명의 옛 여인이 실총한 일을 말하였으니, ‘以新間舊’로 백년해로를 못하게 된 것을 노래하는 古辭의 주제와 유사한 면이 있다.

제 17,18구는 위 네 구의 내용에 대한 시인의 평설이다. 앞 구에는 《呂氏春秋·審分覽·任數》의 “의지할 것은 마음이지만, 마음도 믿기에는 부족하다(所恃者心也, 而心猶不足恃)”²¹⁾는 의미가 활용되어 있다. ‘心賞’은 마음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으로 위의 申后와 班婕妤가 여기에 해당한다. 뒤 구에는 《書經·洪範》의 “용모는 공손해야 한다(貌曰恭)”²²⁾의 의미를 활용하였는데, ‘貌恭’은 바로 미모로 군주를 사로잡은 褒姒와 趙飛燕을 말한다. 유왕은 포사에 빠져 정치를 그르쳐 결국 폐출된 申后의 아버지 申侯의 공격을 받아 살해되고 포사도 사로잡혔으며²³⁾, 조비연은 황후가 된 뒤 오히려 여동생 趙合德에게 총애를 빼앗겼고 두 자매의 말년이 좋지 않

18) 《漢書·外戚傳下》(서울: 景仁文化社, 영인본) pp.3983-3988: “孝成班婕妤, 帝初即位選入後宮, 始爲少使, 俄而大幸, 爲婕妤, 居增成舍. ……其後趙飛燕姊弟亦從自 微賤興盛險越禮制, 漸盛於前. 班婕妤及許皇后皆失寵, 希復進見. ……至成帝崩, 婕妤充奉園陵, 葬, 因葬園中.”

19) 《史記·周本紀》 p.148: “褒姒不好笑, 幽王欲其笑萬方, 故不笑. 幽王爲烽燧大鼓, 有寇至則舉烽火. 諸侯悉至, 至而無寇, 褒姒乃大笑. 幽王說之, 爲數舉烽火. 其後不信, 諸侯益亦不至.”

20) 《漢書·外戚傳下》 pp.3988-3989: “孝成趙皇后, 上見飛燕而說之, 召入宮, 大幸. 上立封趙婕妤父臨爲成陽侯. 後月餘, 乃立婕妤爲皇后.”

21) 김근 역주, 《呂氏春秋》(서울: 민음사, 1994.9) 제2권 <八覽> p.380.

22) 《尚書·洪範》(臺北: 大化書局 『十三經注疏』 영인본) 12卷 7b: “五事, 一曰貌, 二曰言, 三曰視, 四曰聽, 五曰思, 貌曰恭, 言曰從, 視曰明, 聽曰聰, 思曰睿, 恭作肅, 從作乂, 明作哲, 聰作謀, 睿作聖.”

23) 《史記·周本紀》 p.149: “又廢申后, 去太子也. 申侯怒, 與繒·犬戎攻幽王. 幽王舉烽火徵兵, 兵莫至. 遂殺幽王驪山下, 虜褒姒, 盡取周賂而去.”

있는데²⁴⁾, 이 구는 이를 두고 한 말이다. 이 두 구는 앞의 네 구를 이어서 우선은 ‘貌恭’이 득세할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은 ‘心賞’을 이길 수 없음을 말함으로써, 자신[心賞]을 비방하고 무고한 이들[貌恭]에 대한 충고를 한 것이다. 마지막 두 구는 예로부터 세상사가 다 이러하니 혼자 가슴치고 원통해 할 필요가 없다는 자위이다.

2. 주제와 창작 시기

이 시의 주제에 대해 《樂府解題》에서는

송 鮑照의 “곧기는 붉은 명주 현과 같고”와 진 張正見의 “평생에 끈은 도를 가슴에 품고”, 당 虞世南의 “기운은 그윽한 길 난초와 같고” 같은 것은, 모두 청렴 정직하고 고결하지만 쇠를 녹이고 옥에 흠집을 내는 것과 같은 비방을 받아 군주의 은총이 그로 인해 엷어졌음을 슬퍼하였으니, 古辭와 가깝다.²⁵⁾

라고 하였고, 劉履도

이것은 대개 포조가 남에게 헐뜯음을 당하여 임금에게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이 제목을 빌어 所懷를 비유한 것이다. 작품의 말미는 《詩經·邶風·綠衣》에서 말하는 “나는 [安命樂天한] 옛 사람을 생각한다, 원망을 없이 하려고”와 같다.²⁶⁾

24) 《漢書·外戚傳下》 pp.3989-3990: “(趙)皇后既立, 後寵少衰, 而弟絕幸, 爲昭儀. ……姊弟顯寵十餘年, 卒皆無子. ……成帝崩. ……趙昭儀自殺.”

25) 《樂府解題》: “若宋鮑照‘直如朱絲繩’, 陳張正見‘平生懷直道’, 唐虞世南‘氣如幽徑蘭’, 皆自傷清直芬馥, 而遭樂金玷玉之謗, 君恩以薄, 與古文近焉.”(郭茂倩, 《樂府詩集》 권41 <相和歌辭·楚調曲> p.1b)

26) 劉履: “此殆明遠爲人所間, 見棄於君, 故借是題以喻所懷. 篇末如<衛風>所云‘我思古人, 俾無訛兮!’”(錢仲聯, 《鮑參軍集注》 p.163)

라고 하여, 포조가 남의 비방을 받고 주군의 버림을 받은 뒤 지은 것으로 보았는데, 작품의 내용으로 보아 주제에 대한 이론을 제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러면 포조가 남의 비방을 받아 주군의 버림을 받은 일이 있는가 하는 문제를 살펴보자. 이 점에 대해서는 짧은 傳記에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다. 오직 포조의 글에서 그러한 흔적을 찾을 수밖에 없는데, 그의 상소문 중에는 그가 처벌에서 해제되어 쓴 것이 세 편 있다. <謝解禁止表>, <謝永安令解禁止啓>, <謝隨恩被原疏>가 그것이다. 앞 두 편은 禁止令을 받았다가 해제된 뒤 올린 글이다. 禁止令이란 관리가 탄핵을 받아 행동의 자유가 제한을 받는 형벌의 하나로 기본적으로 조정의 출입이 금지되었다.²⁷⁾ 그런데 포조의 <사해금지표>에는 자신이 “중대한 의리에 어둡고 거칠며 세상의 예의를 제멋대로 어겼는데” 천자의 밝은 보살핌으로 큰 은총을 입었다고만 했을 뿐,²⁸⁾ 시에서 말한 비방이나 무고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謝永安令解禁止啓>도 자신이 謝氏와 같은 귀족이 아닌데도 과분한 은총을 입었으나 견마지로를 다하지 못하였는데, 큰 은총을 입어 용서를 받았다고만 하였다.²⁹⁾

<謝隨恩被原疏>에는 시에서 언급한 것과 매우 유사한 내용이 있다. 이것은 <代白頭吟>시를 지은 시기가 이 상소문을 지은 시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큼을 시사한다. 이 상소문의 전문을 보자.

신 아됩니다. 담당 부서로부터 명령을 전달받았습니다. 자사 관할 구역 안팎의 오형 이하에게 커다란 은택이 미쳤는데, 저도 거기에 들어있었습니다. 한나라 법률이 故意犯과 過失犯을 구별[하여 처벌]한 것을 좇을 수 있

27) 《宋書·百官志上·光祿勳》 p.1229: “禁止, 身不得入殿省.”

28) <謝解禁止表>: “聞溢大義, 猖狂世禮. ……自非聖朝超然覽臣於視聽之外, 則今日渥澤, 更成妄遭”(《鮑參軍集注》 p.56)

29) <謝永安令解禁止啓>: “臣田茅下第, 質非謝品. ……恩成曲積, 榮秩兼過. ……迄無犬馬, 孤慙星歲. ……值天光燭幽, 神照廣察, 深豐從宥, 與物更稟.”(《鮑參軍集注》 p.75)

고, 주나라 법전이 죄인을 사면하던 법규를 몰래 만났습니다. 큰 기쁨이 갑자기 닥치니 감히 바라던 바가 아니라, 물고기처럼 놀라고 닭처럼 눈이 둥그레져 두렵고도 부끄럽습니다. 저는 실로 대단히 어리석어 정의로운 방도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군주는 존귀하고 신하는 편안하니 어찌 犬馬와 같겠습니까. 또한 常侍 淵穆의 상소문 초고는 바로 제가 지은 것으로, 남을 돕는 일은 공손히 하고 더더욱 경건히 생각해야 하는데, 스스로 예법을 준수하면서 어찌 감히 태만하여 잊어버리겠습니까. 저는 쇠락하고 미천하여 업신여기고 무고할 수 있으니, 曾參도 살인을 했다는데 제가 어찌 허물이 없겠습니까. 병들어 누워 은거하느라 조정에 도와줄 관원도 없으며, 몸은 외롭고 절조는 비천하여 비난의 표적이 되기 쉬웠습니다. 다행히 폐하의 밝음이 아래를 살피고 어진 도가 만물을 길러, 은택이 날짐승 길짐승에도 미치지 저도 마지막 경사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버들은 쉽게 사는 나무지만, 한 사람이 심고 열 사람이 뽑으면 살아있을 버들이 없다”고 한 옛사람의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는 것은 어렵고 뽑는 것은 쉽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저는 혼자 심는 공은 이루어지지 않고 못사람이 뽑는 허물은 누차 닦쳐왔습니다. 저 [닥쳐오는] 바람과 서리는 같지만 이 [견뎌내는] 굳고 약한 본성은 다릅니다. 《尙書》에서는 하늘이 정한 봉록에는 예법이 있다고 하였고, 《周易》에는 신이 내리는 복은 겸손함에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저의 겸손함과 예법으로는 복과 봉록을 사양해야 도리입니다. 우러러 원망하고 고개 숙여 부끄러워하며, 걸으며 탄식하고 앉아서 슬퍼합니다. 즉시 얻어지고 자빠지며 [달려가] 뜰아래에서 은혜에 감사드리고자 하지만, 저는 병이 오래되어 수척하여 무릅쓰고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조금 분주히 일할 수 있게 된다면 별을 이고 말을 달려 길에 오르겠습니다. 감격스러운 진심 감당하지 못합니다. 삼가 상소하여 아뢰니다.³⁰⁾

30) <謝隨恩被原疏>: “臣言: 卽日被曹宣命, 元統內外五刑以下, 浩澤盪汰, 臣亦預焉. 得從漢律故謬之辨, 闡遭周典肆眚之科, 大喜卒至, 非願所圖, 魚愕雞睨, 且悚且慙. 臣誠下愚, 不達義方, 然君尊臣泰, 豈同犬馬. 且常侍臣淵穆疏草, 卽臣所作, 助人爲恭, 猶加敬憶, 自己率禮, 寧敢慢忘. 繇臣悴賤, 可侮可誣, 曾參殺人, 臣豈無過. 寢病幽棲, 無援朝列, 身孤節卑, 易成論議. 幸大明臨下, 仁道毓物, 澤沛翺走, 臣草末慶. 然古人有言: ‘楊者, 易生之木也. 一人植之, 十人拔之, 無生楊矣.’ 何則? 植之者難, 拔之者易. 況臣一植之功不立, 衆拔之過屢至, 同彼風霜, 異此貞脆. 《書》稱天秩有禮, 《易》載神福在謙. 臣之謙禮, 理謝福秩, 仰銜俯愧, 行歎

이 글에서, 포조는 曾子와 동명이인이 살인을 하자 어떤 사람이 배를 짜던 증자의 어머니에게 증자가 살인을 하였다고 말해도 그 어머니는 아들을 신뢰하고 태연히 배를 짚지만, 같은 말을 세 번이나 듣자 무서워 북을 던지고 담을 넘어 달아났으니, 증자의 어짊과 어머니의 신뢰에도 불구하고 세 사람이 의심하자 그 어머니마저 아들을 믿을 수 없었다고 하는, 《戰國策·秦策》의 ‘曾參殺人’의 고사³¹⁾를 인용하여, 자신이 근거 없는 비방과 무고를 당하였음을 해명하였다. 또 수양버들은 늙혀 심거나 거꾸로 또는 꺾꽂이로 심어도 잘 자라는 나무이지만 열 사람이 심은 것을 한 사람만 뽑기만 해도 죽는다고 한 《戰國策·魏策》의 고사³²⁾를 인용하면서, 자신에게는 못사람의 비방이 가해져 風霜을 겪었는데 자신의 처지는 취약하여 더욱 쉽게 무너지게 되었음을 말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代白頭吟>에서 말한 “猜恨坐相仍”과 “食苗實碩鼠, 玷白信蒼蠅”의 상황에 대한 뒷받침이 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대백두음>은 이 상소문을 짓기 전, 포조가 무고를 받아 처벌을 받은 후에 지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이 상소문이 언제 누구에게 지어 바친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다. 상소문 속에 나오는 ‘淵穆’이라는 인명이 이 글의 창작 시기를 밝히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지만, 《宋書》와 《南史》 등에 전혀 등장하지 않아,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鍾優民은 포조가 임천왕 막부에 있으면서 몇 차례 좌절을 겪고 한 두 차례 처벌을 받았다면, <謝解禁止表>와 <謝隨恩被原疏> 등을 근거로 제시하였으며, 처벌 사유는 중대 과실은 아니고 포조의 빼어난 재능과

坐威。卽欲顛沛, 拜恩下庭, 但臣病久柴羸, 不堪冒涉, 小得趨馳, 星駕登路, 不勝荷佩之誠, 謹上疏以聞。”(《鮑參軍集注》 pp.66-67)

31) 《戰國策·秦策二》(東京: 集英社, 1982.10) 上冊 p.216: “昔者曾子處費, 費人有與曾子同名族者而殺人. 人告曾子母曰: ‘曾參殺人.’ 曾子之母曰: ‘吾子不殺人.’ 織自若. 有頃焉, 人又曰: ‘曾參殺人.’ 其母尚織自若也. 頃之, 一人又告之曰: ‘曾參殺人.’ 其母懼, 投杼踰牆而走. 夫以曾參之賢與母之信也, 而三人疑之, 則慈母不能信也.”

32) 《戰國策·魏策二》 下冊 p.31: “夫楊, 橫樹之則生, 倒樹之則生, 折而樹之又生. 然使十人樹楊, 一人拔之, 則無生楊矣.”

강직한 성품 때문이었다고 하였다.³³⁾ 蘇瑞隆도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劉義慶의 封國에서 포조는 중시되었지만, 남모를 근심도 있었으니 주로 동료들 간의 배척을 받았다”고 하고서, 이 상소문이 그의 곤경도 묘사하였다고 하였다.³⁴⁾ 그리고 이어서 포조의 <野鵝賦>의 “이미 얼굴을 펴서 햇별을 쬐고, 또 깃축을 펴서 구름을 헤친다. 거기에 있는 것들과 짝이 되었지만, 끝내 나에 있어서는 무리가 아니다(既敷容以照景, 亦避翮而排雲, 雖居物以成偶, 終在我以非群.)”를 인용하면서, 이를 통해 그가 동료의 비방과 배척을 받았던 것 같음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³⁵⁾ 이 부는 어떤 사람이 臨川王에게 야생 거위를 바쳤는데 그것이 묶여 있는 것을 가슴 아파한 세자가 포조에게 명하여 지은 것이므로,³⁶⁾ 이것은 臨川王 劉義慶 왕국의 막료로 있을 때 지은 것이 분명하다. 포조는 439년 江州刺史 임천왕 유의경의 시랑이 되어 尋陽으로 가서, 440년에 유의경이 南兗州刺史가 되자 그를 수행하여 廣陵으로 갔고, 443년 말 건강 악화로 귀경한 임천왕을 따라 함께 수도로 돌아왔으며, 444년 정월 임천왕이 죽자 석 달을 服喪한 후 고향으로 돌아갔다. 따라서 이 부가 지어진 것은 439년에서 443년 사이이다.

그러나 이 賦에서 앞의 상소문과 유사한 상황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묘사한 부분은 없다. 다만 앞에 인용된 부분에서 시인이 임천왕 막부의 많은 문인 및 관리들과 동료가 되었으나 그들과 잘 어울리지 못한 심정을 줄에 묶여 부자유스러운 ‘野鵝’에 투영하였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그리고 앞의 상소문에 천자를 연상시키는 ‘宣命’과 ‘大明’이라는 단어가 있기는 하지만, ‘元統’이라는 단어가 刺史의 통치권이 미치는 지역을 가리키고 있어서³⁷⁾, 포조가 이 상소문을 쓸 당시 사면 대상자들이 자사 통치권 하에 있

33) 鍾優民, 《社會詩人鮑照》(臺北: 文津出版社, 1994.2) p.35.

34) 蘇瑞隆, 《鮑照詩文研究》(北京: 中華書局, 2006.1) p.14.

35) 같은 책, p.15.

36) <野鵝賦序>: “有獻野鵝於臨川王, 世子愍其樊繫, 命爲之賦.”(《鮑參軍集注》 p.41)

37) 《宋書·衡陽文王義季傳》 p.1655에 “서주자사로 옮겼다. ……武帝가 조칙을

던 사람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임천왕 유의경에게 문학적 재능을 인정받아 國侍郎에서 平西記室參軍까지 지낸 何長瑜가, 임천왕 막부의 벼슬아치들을 놀리는 시를 지어 그러한 풍조를 유행시킨 것 때문에, 유의경의 분노를 촉발하여 曾城令으로 쫓겨나, 유의경 사후에야 廬陵王 劉紹의 南中郎行參軍으로 발탁될 수 있었던 사건³⁸⁾은, 유의경이 아무리 총애하는 신하라도 예의에 어긋나거나 진중하지 못하면 엄하게 처벌하는 성품을 지녔음을 말해준다. 따라서 포조가 동료의 비방과 무고로 처벌을 받은 것이 이 시기였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3. 의의와 영향

포조 <대백두음>의 가장 큰 의의는 같은 제목의 古辭의 주제나 내용을 전환하여 확장 내지 변화시킨 ‘轉’에 있으니, 백년해로를 할 수 없게 된 여성 화자가 남편에게 결별을 선언하는 내용을, 타인의 무고로 징계를 받게 된 남성 화자의 울분 토도로 바꾼 것이 그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후인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樂府解題》에서는 陳 張正見과 唐 虞世南의 <백두음>을 예로 들면서 “모두 청렴 정직하고 고결하지만 쇠를 녹이고 옥에 흠집을 내는 것과 같은 비방을 받아 군주의 은총이 그로 인해 얽어졌음을 슬퍼한” 작품이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포조가 그 발단을 연 것이다. 우세남의 작품은 지금 전하지 않는다. 張正見의 작품에서는 올바른 도를 품었지만 仕途에서는 큰 뜻을 펴지 못한 漢의 顏驕(<漢武故事>)와 揚雄(<漢書·揚雄傳>), 後漢의 崔駰(<後漢書·崔駰傳>)과 馮衍(<後漢

내려 ‘그가 주의 통치자가 되어 兵馬가 날래고 군세어……’라고 하였다(遷徐州刺史, 太祖詔之曰: ‘彼爲元統, 士馬桓桓……’)”고 하였다. ‘元統’이 자사의 통치를 의미함을 보여준다.

38) 《宋書·何長瑜傳》 p.1775: “臨川王招集文士, 長瑜自國侍郎至平西記室參軍. 嘗於江陵寄書與宗人何尉, 以韻語序義慶州府僚佐云: ……義慶大怒, 白太祖除爲廣州所統曾城令. 及義慶薨, ……廬陵王紹鎮尋陽, 以長瑜爲南中郎行參軍, 掌書記之任.”

書·馮衍傳》의 행적 및 궁중에서 뜻을 이루지 못한 王昭君과 班婕妤 두 여인의 고사를 통하여, 회재불우와 인생무상의 정서를 노래하였다.

- | | |
|------------------------|-------|
| 1. 평생에 끈은 도를 품에 안고서 | 平生懷直道 |
| 2. 송계처럼 참된 풍도 좇으려 했다. | 松桂比眞風 |
| 3. 말과 침묵 미와 추 갈리는 즈음 | 語默妍蚩際 |
| 4. 부침과 비방 명예 그 사이에서, | 沈浮毀譽中 |
| 5. 비방 일면 은혜는 끝나기 쉽고 | 讒新恩易盡 |
| 6. 정 떠나면 총애는 견지하기 어렵다. | 情去寵難終 |
| 7. 황금 시장 옆에서 진주 튕기고 | 彈珠金市側 |
| 8. 곤륜산 동쪽에서 옥을 버린다. | 抵玉崑山東 |
| 9. 尙書郎 된 안사는 늙어버렸고 | 含香老顏駟 |
| 10. 侍衛官 된 양웅은 남과 달랐다. | 執戟異揚雄 |
| 11. 崔駰은 슬픔에 깊이 젖었고 | 惆悵崔亭伯 |
| 12. 馮衍은 말 못할 근심 있었다. | 幽憂馮敬通 |
| 13. 왕소군은 호지에서 죽음을 맞고 | 王嬙沒胡塞 |
| 14. 반첩여는 심궁에서 버림 받았다. | 班女棄深宮 |
| 15. 봄 이끼는 발자국을 덮어버리고 | 春苔封履跡 |
| 16. 가을 낙엽 붉은 화장 뺏어버렸다. | 秋葉奪妝紅 |
| 17. 얼굴은 꽃 저버린 무궁화 같고 | 顏如花落槿 |
| 18. 귀밑머리 눈 날리는 쭉대 같도다. | 鬢似雪飄蓬 |
| 19. 이 때에는 긴 한숨 절로 쌓이니 | 此時積長歎 |
| 20. 짧은 인생 누가 다시 함께하리오. | 傷年誰復同 |

初唐 劉希夷의 작품도 古辭와는 달리 한 白頭翁이 紅顏이 쉬 늙고 청춘은 붙들기 어렵다는 인생무상을 읊었다. 또 盛唐 王昌齡의 <芙蓉樓送辛漸>시는 포조 <대백두음>의 시어를 변용하여 絶唱이 되었다.

- | | |
|-------------------------|---------|
| 1. 찬비 오는 강물 따라 강남땅에 들어와 | 寒雨連江夜入吳 |
| 2. 새벽에 손 보내니 초산이 외롭구려. | 平明送客楚山孤 |
| 3. 낙양의 친우들이 내 소식을 묻거든 | 洛陽親友如相問 |

4. 한 조각 얼음 마음 옥병 속에 있다 하오.

一片冰心在玉壺

낙양으로 떠나는 친구 辛漸을 전송하며 지은 시이다. 마지막 구절은, 신 점에게 낙양에 도착하여 그곳 친구들이 시인의 소식을 물을 때에 대비해 대답으로 제시해준 말이다. 자신의 마음은 옥병 속에 든 얼음처럼 깨끗한 것임을 말한 이 구절은 포조 시의 “清如玉壺水”에 뿌리를 둔 것으로, 인구에 회자하는 명구이다.

中唐의 白居易는 심지어 <反白頭吟>을 지어 포조의 <백두음>의 취지를 반박하였다. 이 시는 《白氏長慶集》에는 제목이 <反鮑明遠白頭吟>으로 되어 있다.³⁹⁾

- | | |
|-------------------------|-------|
| 1. 뜨겁게 타는 것은 맹렬한 불길 | 炎炎者烈火 |
| 2. 악착같이 덩비는 건 작은 쉬파리. | 營營者小蠅 |
| 3. 불꽃은 굳은 옥을 데우지 못하고 | 火不熱貞玉 |
| 4. 파리는 맑은 얼음 더럽히지 못하오. | 蠅不點清冰 |
| 5. 이것이 받을 것이 만약 없다면 | 此苟無所受 |
| 6. 저것도 일어날 수 없는 법이오. | 彼莫能相仍 |
| 7. 알 수 있소, 만물의 본성 중에는 | 乃知物性中 |
| 8. 할 수 있고 없음이 각각 있음. | 各有能不能 |
| 9. 옛말에도 있다오, 원한 품고 죽으면 | 古稱怨恨死 |
| 10. 사람들이 꺼려하는 바가 있다고. | 則人有所懲 |
| 11. 악행 징계 옳을 수 있긴 하지만 | 懲淫或應可 |
| 12. 도리를 널리 펴진 못하였다오. | 在道未爲弘 |
| 13. 이를테면 매미와 메추라기가 | 譬如蝸蟻徒 |
| 14. 짹짹 울며 용과 봉새 쪼는 것이라. | 啾啾啅龍鵬 |
| 15. 마땅히 버려두고 떠나야 하니 | 宜當委之去 |
| 16. 공활하게 높이높이 날아오르라. | 寥廓高飛騰 |
| 17. 어찌 능히 진흙탕 먼지 아래서 | 豈能泥塵下 |
| 18. 구구하게 원한 증오 갚아야 하오? | 區區酬怨憎 |

39) 《白氏長慶集》(臺北: 商務印書館『文淵閣四庫全書』本) 권2 p.27a.

- | | |
|-----------------------|-------|
| 19. 무엇 땀에 스스로 괴로워하며 | 胡爲坐自苦 |
| 20. 가슴 치며 슬픔을 삼키려 하오? | 吞悲仍撫膺 |

포조를 무고하고 비방한 무리들은 매미와 메추라기 같은 하찮은 존재들에, 포조는 용과 봉새 같은 비범한 인물에 빗대면서, 세속의 진흙탕 먼지 아래에서 벌어지는 이진투구 식의 싸움에 휩쓸리지 말고 초탈한 삶을 누릴 것을 말하고 있다. 백거이의 이 작품은, 揚雄이 <離騷>를 읽을 때마다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며, 군자는 때를 만나면 나가서 포부를 펼치고 그렇지 못하면 은거하면 되는 것이니, 군이 강물에 투신자살을 할 거야 없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며, <反離騷>를 지어 <離騷>의 내용을 뒤집은 것⁴⁰⁾과 같은 취지이다. 따라서 외형상 포조를 반박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백거이도 포조와 포조의 시에 대한 존중의 마음을 지니고 있음을 읽을 수 있다.

IV. 結 語

<白頭吟> 古辭는 본래 남편의 변심으로 ‘백년해로’를 할 수 없게 되자 아내가 결별을 선언하는 여성화자의 민간 악부이다. 제목은 백년해로의 중국어 표현 ‘白頭偕老’의 뜻이다. 《西京雜記》에서 司馬相如의 변심을 아내 卓文君이 힐책하여 바로잡은 시라고 한 이래로, 그 영향력이 상당하여 盛唐의 대시인 李白은 이 이야기를 중심으로 두 편의 <白頭吟>을 지었을 정도이다. 하지만 馮舒와 陳沆 등의 지적처럼 이는 탁문군과는 무관한 한대의 민간 악부로 보아야 할 것이다.

포조의 <대백두음>은 제목에서 보이는 것처럼 고사 <백두음>을 본뜬 것이다. 그러나 내용면에서 고사와는 달리, 청렴하고 강직한 성품을 지니

40) 《漢書·揚雄傳》 p.3515: “又怪屈原文過相如, 至不容, 作<離騷>, 自投江而死, 悲其文, 讀之未嘗不流涕也. 以爲君子得時則大行, 不得時則龍蛇, 遇不遇命也, 何必湛身哉! 乃作書, 往往撫<離騷>文而反之, ……名曰<反離騷>.”

고 양심에 부끄러운 행동을 한 적이 없는 남성화자가, 주변의 시기와 원한을 받아 버림받고 쫓겨나는 신세가 됨을 억울해하며 울분을 토로하고 있다. 여기에 사용된 전고들 중에, 申后와 班婕妤라는 두 여인이 褒姒와 趙飛燕이라는 다른 여인 때문에 실총한 경우는 古辭의 흔적이 되는 셈이지만, 田饒와 汲黯은 모두 관리로 멀리서 온 사람과 후임자 때문에 떠나거나 치이게 된 경우여서 고사와는 다르다. 이 점에서 포조의 이 시는 朱乾의 지적처럼 ‘轉’을 통하여 擬樂府를 한 단계 발전시켰다고 할 수 있다.

이 시의 내용처럼 남의 비방과 무고를 받아 처벌을 받았다가 사면을 받은 뒤 감사의 뜻을 적은 상소문 <謝隨恩被原疏>가 있다. 이를 통하여 <代白頭吟>은 허구나 상상이 아니라,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한 “感於哀樂，緣事而發”의 한대 민간악부 정신을 살린 작품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상소문이 언제 지어진 것인지는 확정할 자료가 없다. 다만 비슷한 정서와 심리적 소외감을 읽을 수 있는 작품으로 <野鵝賦>가 있는데, 이것은 서문에서 임천왕 유의경의 세자에게 바친 것으로 분명히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자료에 근거하면 <대백두음>시는 임천왕 유의경의 막료로 있을 시기인 439년에서 443년 사이에 지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시는 후대의 일부 시인들에게 영향을 미쳐, 작품의 주제를 남녀 간의 백년해로에서 정직하지만 회재불우한 인물들의 이야기를 읊는 것으로 전환한 작품도 나오게 하였다. 또 첫 두 구절의 형상적인 비유는 王昌齡의 시에 영향을 주어 “一片冰心在玉壺”라는 명구를 낳게 하였다. 심지어 중당의 白居易는 포조 시의 내용을 뒤집어 반문하는 <反白頭吟>이라는 제목의 시를 지었다. 이런 예들은 포조의 이 시가 후대의 시인들에게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쳤음을 말해준다.

<參考文獻>

錢仲聯 增補集說校, 《鮑參軍集注》(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0. 11.

- 五臣并李善注, 《文選》(서울: 正文社 영인본)
- 郭茂倩, 《樂府詩集》(臺北: 中華書局), 1970. 6.
- 《全上古三代秦漢三國六朝文》2(4版; 臺北: 世界書局), 1982. 2.
- 賴, 炎元註譯, 《韓詩外傳今註今譯》(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94. 6.
- 黃節, 《漢魏樂府風箋》(臺北: 學生書局), 1971. 3.
- 余冠英, 《漢魏六朝詩選》(北京 제2판;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1978. 12.
- 陳沆, 《詩比興箋》(香港: 中華書局), 1965. 4.
- 馮舒, 《詩紀匡謬》(中華書局『知不足齋叢書』本)
- 馮惟訥, 《古詩紀》(臺北: 臺灣商務印書館『文淵閣四庫全書』本)
- 《白氏長慶集》(臺北: 臺灣商務印書館『文淵閣四庫全書』本)
- 《西京雜記》(臺北: 臺灣商務印書館『文淵閣四庫全書』本)
- 《漢武故事》(臺北: 臺灣商務印書館『文淵閣四庫全書』本)
- 《獨異志》(北京: 中華書局), 1985.
- 《授神記》(『學津討原』本)
- 김근 역주, 《呂氏春秋》(서울: 민음사), 1994. 9.
- 《詩經》(臺北: 大化書局『十三經注疏』영인본)
- 《尚書》(臺北: 大化書局『十三經注疏』영인본)
- 《史記》(서울: 景仁文化社, 영인본)
- 《漢書》(서울: 景仁文化社, 영인본)
- 《後漢書》(서울: 景仁文化社 영인본)
- 《宋書》(서울: 景仁文化社 영인본)
- 《戰國策》(東京: 集英社), 1982.10
- 鍾優民, 《社會詩人鮑照》(臺北: 文津出版社), 1994. 2.
- 蘇瑞隆, 《鮑照詩文研究》(北京: 中華書局), 2006. 1.
- 趙其鈞, <『白頭吟』鑑賞>, 《漢魏晉南北朝隋詩鑑賞詞典》(太原: 山西人民出版社), 1989. 3.

< 中文提要 >

朱乾在《樂府正義》評論鮑照〈代出自薊北門行〉詩時說：“蓋樂府有轉有借，轉者就舊題而轉出新意，借者借前題而裁以己意。”他以為〈代出自薊北門行〉詩正是用‘借’的手法的典型例子。而我在這篇文章裏便將鮑照〈代白頭吟〉詩視為‘轉’的一例來分析的。〈白頭吟〉本辭寫的是女主人公為“良人有兩意，故來與之相決絕，”而鮑照〈代白頭吟〉却抒寫男主人公自懷清直，而“為人所間，見棄於君，”在主題思想方面確實有‘轉換和擴大的作用。

那這首詩寫在什麼時候呢？關於這個問題沒有一件歷史記錄可供參考。只在鮑照自己的文章裏我們找得到一個線索。在他的〈謝隨恩被原疏〉裏鮑照說“繇臣悴賤，可侮可誣，曾參殺人，臣豈無過。……況臣一植之功不立，衆拔之過屢至。”這就是他“為人所間，見棄於君”的確據。所以這兩篇文章很可能是寫在同一個時期的。他在〈野鵝賦〉裏也說“雖居物以成偶，終在我以非群，”從這裏我們能感覺到的情緒和氣氛同〈謝隨恩被原疏〉裏的大約相同。鮑照在〈野鵝賦序〉裏說這篇文章是為臨川王世子而寫的。因此，〈代白頭吟〉詩也很可能是寫在鮑照當臨川王劉義慶侍郎時。

這首詩對後來詩人和詩也起了不少影響。首先，後來的一些詩在主題思想方受到鮑照的影響，比如陳張正見·唐虞世南；其次，盛唐王昌齡〈芙蓉樓送辛漸〉詩的最末一句“一片冰心在玉壺”，分明是化用鮑照“清如玉壺冰”的。甚至中唐白居易寫一首〈反白頭吟〉詩來反說鮑照〈代白頭吟〉詩的旨趣。這同漢揚雄寫〈反離騷〉來反說屈原〈離騷〉的旨趣一樣。白居易在表面上批評鮑照，其實這也可以說是他對鮑照和其詩的關心和推崇。

주제어 : 白頭吟, 鮑照, 代白頭吟, 轉, 反白頭吟, 謝隨恩被原疏, 野鵝賦